

반복되는 방학·휴가철 혈액 부족... “정책 변화 시급”

대입 미반영에 10대 헌혈자 급감
방학 기간 단체헌혈 ‘일시 중지’
일부 혈액형 적정 보유량 못 미쳐
“홍보 강화·혜택 확대·정부 지원”
내일부터 31일간 ‘사랑의 헌혈운동’

여름철을 맞아 방학과 휴가 기간이 겹치며 헌혈 수급을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헌혈이 교외 봉사활동에 미반영돼 헌혈의 집을 찾는 고등학생 수가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꾸준히 감소하는 학령인구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광주전남지역 월별 고등학생 헌혈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7월과 8월 고등학생 헌혈자 수는 △2019년(7월 5702명·8월 3119명) △2020년(7월 3642명·8월 4033명) △2021년(7월 4666명·8월 2347명) △2022년(7월 3785명·8월 2038명) △2023년(7월 3297명·8월 857명)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여름과 비교해 종식 이후인 2023년에는 2500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의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 헌혈의집 전대용봉센터 2층 채혈실을 찾은 시민들이 헌혈하고 있다.

여파로 학교에서 단체헌혈을 진행할 수 없는 탓에 7월보다 8월에 헌혈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일 오후 3시께 찾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헌혈의집 전대용봉센터 2층 채혈실은 빈자리가 없어 우려했던 한산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헌혈자들도 여름철을 맞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 혈액원으로부터 헌혈이 부족하다는 문자를 받고 이날 헌혈의집 전대용봉센터를 찾은 정여주(21)씨는 “작년 처음으로 헌혈에 참여한 후 이날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됐다”며 “올해부터는 헌혈 참여 학생들에게 개인 헌혈봉사시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헌혈하면 선행상

을 수여해 가산점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시행해 고등학생들의 헌혈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12번째 헌혈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 천영미(61)씨도 홍보 강화와 혜택 증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씨는 “의료종사자가 아닌 소시민으로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가 헌혈이라고 믿고 50대 초반부터 시작하게 됐다. 다른 헌혈자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편인데 중장년층을 위해 온라인뿐 아니라 TV 홍보가 더 이뤄졌으면 한다”며 “헌혈자에게 1+1 상품 등 혜택을 늘리고 프로모션을 자주 진행해 장기적인 헌혈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라

면 1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6.5일분(△O형·5.9일분 △A형·6.7일분 △B형·7.6일분 △AB형·5.4일분)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적정 보유량 기준(5일)을 상회하지만, 7월 평균 7일분 후반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월 들어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해정 헌혈의집 전대용봉센터 과장은 “본격 여름 방학 기간이 시작돼 단체 채혈이 줄며 혈액 보유량이 일부 혈액형에선 5일에 못미치고 있다”며 “광주에서 가장 많은 헌혈자들이 찾는 충장로센터가 리모텔링 공사로 문을 닫은 것도 헌혈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장로센터를 찾던 분들이 첨단센터, 전대용봉센터 등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선 광주·전남혈액원 간호팀장은 혈액원의 자체적인 홍보로는 역부족이라며 헌혈 참여를 촉진 시킬 정부 차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7월 말까지 7일 대를 유지하던 평균 혈액 보유량이 장마와 폭염으로 현재는 5일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일부 혈액형은 3일 대로 떨어져 혈액 수급 난항에 봉착한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 시기와 봉사시간 대입 미반영 결정 등이 맞물려 10대 헌혈자가 급감해 가는 상황에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 수급 어려움이 단순히 여름철이라는 시기상 문제나 단기적 위기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헌혈 수급 난항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돼 혈액원 차원의 홍보와 프로모션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 차원에서 10대 헌혈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혈액원에선 하계 휴가철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31일간 광주시민 대상 헌혈 릴레이 ‘31일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광복절 연휴가 끼어있는 8월 셋째 주가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헌혈 감소를 최소화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앞선다.

글·사진·박찬 기자

헌혈로 기부도 할 수 있나요?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헌혈은 기부다. 기부라 하면 주로 금전이나 물품을 나누는 것을 일컫는 데 헌혈 또한 혈액을 기부하는 행위다. 이처럼 헌혈은 기부이면서 봉사이기도 하다. 헌혈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혈은 1회당 4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여기에 헌혈자가 헌혈 후 받는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기념품 구매비용 상당의 금액이 적립돼 이듬해 장학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

이렇게 기부권 선택은 혈액 기부에 이어 금전 기부를 더하는 두 배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해 32만여명이 선택한 기부권으로 모인 성금은 13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대략 헌혈자 100명 중 11명 이상으로 전국 평균 11.6% 내외가 기부권을 선택했다. 광주·전남은 12.6%(2만3898건, 1억1040만원)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 서울·경기 11%~, 최저 제주 1.2%)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헌혈자가 영화관



람권과 같은 기념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면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의외로 고교생 헌혈자(전국 2만466명)도 꽤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혈기부권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헌혈 기부권으로 모여진 기부금은 우리 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고교생 장학금으로 35명에게 100만원씩 총 3500만원이 전달됐다.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헌

혈 기부권을 몰랐다. 앞으로 헌혈하면 무조건 기부권을 선택하겠다”라며 “이 장학금은 혈액원이 아니라 헌혈자가 주신 것이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는 헌혈 등 장려 조례에 8월 13일을 ‘시민 헌혈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와 방학으로 혈액 수급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정해 공직자 헌혈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1일간의 생명 사랑 나눔’이란 슬로건으로 시청, 5개 구청, 공공기관, 광주시민 등 1만명을 목표로 헌혈 버스과 헌혈의 집에서 헌혈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이달부터 추가기념품 증정을 시행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헌혈자가 참여하는 제빵 봉사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고 김경호 콘서트, 목포유람선 승선 할인권 등 다양한 선물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 혈액 수요는 지난달부터의 정 갈등 상황 이전과 비슷한 추세로 회복되고 있다. 캠페인 기간 절대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8·13 시민 헌혈의 날을 시작으로 5·18과 코로나 시기에 보여준 헌혈 행렬이 다시 이어지는 광주시민의 저력을 기대한다. 특히 방학 중인 학생 자녀와 동생들과 함께 청장년층들이 휴가 기간에 피서를 헌혈의 집에서 즐기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혈액 기부와 기부권 선택으로 ‘피’를 ‘서’로 나누는 아주 특별한 피서가 되길 바란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373-3235
아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